

# 정보의 바다에서 책정보 사냥을

## 인터넷 통해 외국 저자·저작물·작품세계 정보 사냥

인터넷은 정보의 바다다. 활용하기에 따라 풍성하고 편리하기 그지없는 이곳은 그러나 초보자들에게는 동서남북을 분간하기 힘든 망망대해다. 많은 출판인들이 인터넷에 높은 관심을 가지지만 정작 어떻게 활용해야 할지는 잘 모르고 있다. 어느 곳에 그물을 던지면 유용한 정보를 얻을 수 있는가. 출판계의 동향을 간단하게 파악해낼 수 있고 관심이 가는 작가와 작품에 대한 상세한 정보를 입수할 수 있는 곳은 어디이며, 책을 사고 싶을 때는 어떻게 해야 하나. 인터넷을 자주 이용하고 있는 몇몇 출판인들의 경험을 통해 인터넷을 효과적으로 향유할 수 있는 지름길을 알아본다.

### 2천개에 달하는 온라인 서점

넓게 보자면 출판에 필요한 정보 아닌 것이 어디 있을까마는 직접적으로 관련된 정보를 수록하고 있는 곳은 아무래도 서점이나 출판사의 홈페이지, 각종 도서관, 온라인 잡지 등이다. 현재 유통되고 잘 팔릴 만한 책들에 대한 정보를 접할 수 있고 책을 구입할 수도 있는 곳이 온라인 서점이다. 인터넷에는 2천여개의 서점이 있는 것으로 추정되는데 각기 다른 특성과 서비스로 독자들을 부른다. 온라인 서점을 찾아가는 방법은 여러가지. 검색 엔진인 '야후(<http://www.Yahoo.com>)'를 이용하는 방법이 가장 쉽다. 야후에 들어가 'Business and Economy'→'Company'→'Books'로 가보면 온라인 서점 목록을 모두 볼 수 있다.

온라인 서점 가운데 출판인들이 가장 먼저 손꼽는 곳은 '아마존'(<http://www.amazon.com>). 그야말로 책의 정글이라 할 만큼 많은 책(100만권)을 보유하고 있다. 키워드, 저자나 제목 주제 검색과 and나 or 등의 옵션을 제공하는 검색, 아마존에서 사용하는 검색언어 이용 등 4가지 방법으로 검색할 수 있다. 한울출판사 기획실장 이규성씨는 아마존이 제공하는 책정보들이 책의 성격에 따라 다르기는 하지만 기본적인 서지사항은 물론 리뷰와 저자의 말을 수록하고 있고, 독자와 저자가 함께 참여해 서평을 계속 부가하므로 책을 판단 하는데 도움을 준다고 말한다.

민음사 저작권 담당자 남유선씨도 아마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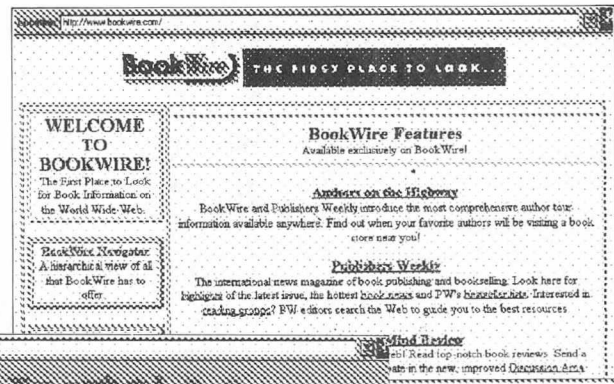
인터넷은 단순한 정보 네트워크가 아니다. 아직 미흡한 점이 있더라도 책의 기획과 생산, 유통과 광고, 나아가 책의 형태까지 변환시키는 결과를 가져온다. 인터넷 열풍의 거품과 '정보 식민화'의 우려에도 불구하고 인터넷에 대한 관심의 중요성은 강조되고 있다.

이 잘 팔릴만한 책을 광범위 하게 갖추고 있으며, 주제를 아주 세분화해서 찾아보기에 편리하다고 한다. 책에 대한 정보도 비교적 상세해서 간혹 이 서점이 제공하는 책정보를 출간에 정인 책들의 보도자료로 활용하기도 한다. 물론 책을 살 수도 있는데, 쇼핑 바스켓을 구비해두고 마음에 드는 책 부분에 가서 마우스를 클릭하면 책이 쇼핑 바스켓에 담기는 점이 흥미롭다. 나중에 정리해서 계산하면 된다.

아마존 서점이 장서량이 많은 것으로 유명하다면 가격이 싸기로 유명한 곳은 '북풀 서점'(<http://www.bookpool.com>)이다. 주로 컴퓨터 서적이거나 기술서적이 많은데 항상 20~35% 가량 할인해서 책을 팔기 때문에 인기가 높다. 책을 살 때마다 액수에 따라 일정한 점수를 주고 그 점수가 일정 정도에 달하면 해당하는 책을 공짜로 주는 '북마크'라는 독특한 서비스도 실시한다.

### 출판계 흐름 알려주는 '북 와이어'

인터넷을 통해 출판이나 책에 관한 정보 사냥에 나서 본 사람들 대부분이 가장 먼저 접한 웹사이트는 '북 와이어'(<http://www.bookwire.com>)다. 신간에 대한 정



망망대해의 인터넷에서도 길만 잘 찾으면 유용한 책정보를 사냥할 수 있다.

보는 물론이고 서평이나 출판행사, 출판사 등 방대한 정보량을 자랑하는데, 특히 《퍼블리셔스 위클리》나 《뉴욕 타임즈 북리뷰》 등 전문잡지와도 곧장 연결되고 북페어 사이트와도 연결되어 있다. 남유선씨는 지난 번 프랑크푸르트 도서전에 갔을 때 북와이어의 덕을 토틀히 봤다. 도서전에 가서 외국 저작권자와 미팅하느라 전체 흐름을 파악하기가 힘이 들었는데 북와이어를 통해 추이를 알 수 있었다고.

온라인 서점 외에 각 출판사들의 홈페이지도 방문해볼 만하다. 국내에는 인터넷에 홈페이지를 개설한 출판사가 아직까지 드물지만 외국에는 많다. '랜덤하우스'는 데이터의 내용이 매달 바뀌어 잘 운영되는 사이트라는 인상을 주는가 하면 '갈리마르'는 아직 자사의 책을 소개하는 수준. 패스 파인더(path finder)를 통해 접속하는 '위너사'의 경우 소속된 타임지·피플지·비디오·영화 등 다양하고 고급한 정보를 접할 수

있다. 독일어권 출판사로는 유명한 '케이 앤 어'가 있는데 도소매를 겸하고 있어 책을 싸게 구입할 수 있다.

이밖에 참고할 만한 웹사이트로는 'Book Web'(<http://www.ambook.org/bookweb>)이 있다. 새로운 도서정보, 미디어 도서 관련 사이트 목록 및 홈페이지, 자료, 서점, 특정 서적류 등으로 잘 분류하여 각종 책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다. 한편, 특정한 웹사이트를 이용하기보다는 '야후' 같은 검색 엔진을 이용, 찾고 싶은 항목을 검색하는 방법도 있다. 자주 들락거리는 웹사이트를 메모한 노트를 가지고 있을 만큼 인터넷을 자주 이용한다는 강(江) 출판사의 안찬수씨는, 특히 국내에는 잘 알려지지 않았지만 외국에서는 유명한 저자나 작가의 작품세계나 작품목록을 알고 싶을 때 이 방법으로 도움을 많이 받는다. 가령, 마셜 맥루한이라는 저자에 관한 정보를 알고 싶으면 '야후'에 들어가 '마셜 맥루한'이라고 검색



두산100주년 기념

## 어제, 펫 매시니의 재즈 기타에 취했었다면 오늘은, 아인슈타인의 理性에 빠져보는거야!

### 자유로운 理性을 위한 과학교양서, <사이언스 마스터즈>

감성만 자유롭다면 그건 자유가 아닙니다.

진정한 자유라면,

理性으로부터 자유로워야 합니다.

사이언스 마스터즈 -

세상을 이해하기 위한 과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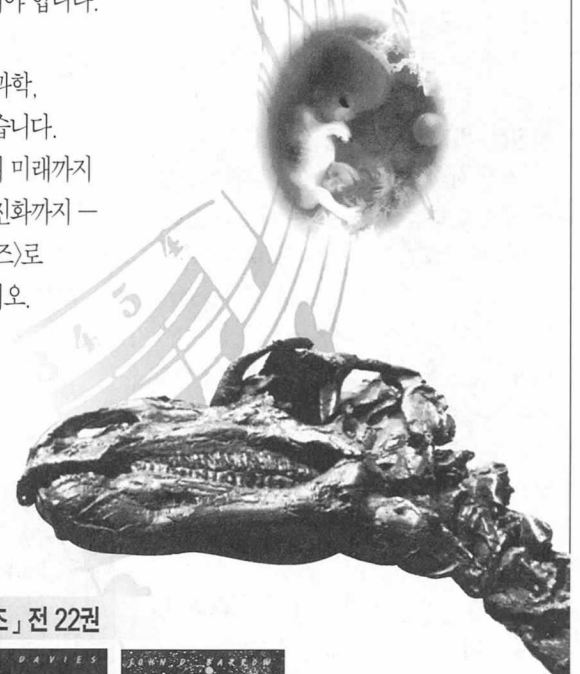
理性의 이야기를 담았습니다.

인류의 기원에서 우주의 미래까지

세포의 진화에서 성의 진화까지 -

이제 <사이언스 마스터즈>로

진정한 자유인이 되십시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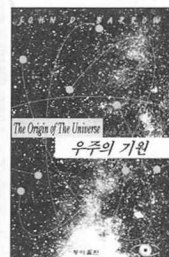
### 「사이언스 마스터즈 시리즈」 전 22권



**① 에덴 밖의 강**  
유전자로 본 진화의 매커니즘  
과연 인류는 무한대로 복제가 가능한 것인가?  
유전자의 결합과 경쟁 그리고 새로운 종으로의 분리는?  
리처드 도킨스 지음



**② 마지막 3분**  
지구 최후의 운명에 관한 시나리오  
2126년 8월 21일, 거대한 혜성과 지구가 부딪힌다. 남은 시간은 3분. 지구의 운명은?  
폴 데이비스 지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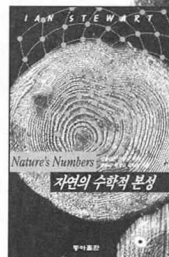
**③ 우주의 기원**  
우주 최초의 흔적에 대한 탐사  
코비워성이 전한 우주의 비밀은 무엇인가?  
우주의 시작, 초평행, 오늘날의 우주에 이르기까지 그 비밀의 기원을 찾아간다  
존 배로우 지음



**④ 인류의 기원**  
화석 사냥꾼이 들려주는 최초의 인간이야기  
인류는 과연 20만 년 전 아프리카의 한 여인으로부터 시작되었는가?  
6만 년 동안 지구의 주인이었던 네안데르탈인이 사라진 이유는?  
리처드 리키 지음



**⑤ 원소의 왕국**  
화학 원소들의 나라로 떠나는 여행  
어떻게 주기율을 통해 우주 만물을 이해할 것인가? 물질의 핵심으로의 신나는 여행이 될 것이다  
피터 앳킨스 지음



**⑥ 자연의 수학적 본성**  
이름다운 관념의 우주, 수학의 세계로 떠나는 여행  
눈송이는 왜 모두 6각형인가?  
호랑이는 줄무늬, 표범은 점박무늬인 이유는 무엇인가?  
수학에 대한 사전지식이 전혀 없는 사람도 누구나 쉽게 읽을 수 있다  
이언 스투어트 지음

정가: 각권 6,800원  
※ 계속 발간됩니다.



두산동아  
영인 (02) 861-4818 / (02) 853-5608

어를 기입하면 해당 정보를 가지고 있는 사이트들이 나열된다.

박영률출판사 홍보부의 엄진섭씨도 검색 엔진을 통한 주제어 검색을 주로 이용한다. 마치 외국 신문이나 잡지를 읽듯이 사이트를 옮겨 다니며 정보를 얻는데, 하나의 신문이나 잡지에서 파악하기 힘든 세계 출판의 흐름을 파악하게 된다. 얼마전에는 《디지털이다》의 저자 네그로폰테 방한 작업을 모두 인터넷으로 처리했는데, 그때 네그로폰테가 운영하는 온라인 잡지인 핫 와이어드 (<http://www.Hot Wired.com>)에 들어가본 이후 종종 이 사이트를 이용한다. 다른 잡지나 신문들과 링크할 수 있어 좋다.

국내 출판사 홈페이지를 이용해 해외의 출판관련 사이트와 연결된다. 국내 출판사로는 유일하게 전용서버를 구축하고 있는 영진출판사 (<http://www.youngin.co.kr>)에 들어가면 국내는 물론 전세계 신문·잡지·방송·통신사 등에 손쉽게 접속할 수 있는 '온라인 뉴스'와 특정 분야별 인기 사이트에 대한 정보를 상세하게 수록한 '정보사냥'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다. 단행본 출판사로는 유일한 도서출판 한울 (<http://blue.nowcom.co.kr/~newhanul>)의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외국출판사, 도서관, 온라인 서점과 연결된다.

### 출판의 구조 변환시킬 인터넷

외국 출판사와의 저작권 계약을 맺거나 텍스트를 주문하는 등의 업무처리에도 인터넷은 더없이 효율적이다. 종래 팩스로 저작권 업무를 처리할 때는 PC에서 서한을 뽑아 그것을 다시 팩스로 보내는 등 이중의 일 처리로 시간도 더디고 텍스트의 선명도도 떨어졌는데, 전자메일을 이용하니 빠르고 정확하게 선명한 내용을 전달할 수 있어 좋다고 출판인들은 입을 모은다. 그러나 아직까지 인터넷의 정보가 기획이나 출판으로 연결되는 일은 그리 흔치 않다.

박영률출판사의 《유나바머》나 황금가지의 《아무것도 되는 게 없어》를 꼽을 수 있을 정도. 《유나바머》는 24세에 버클리대 중신교수권을 따냈으면서도 산업사회의 비인간성을 비판하면서 18년동안 16차례나 폭탄테러를 저질렀던 악마적 천재 '유나바머'에

관한 책이다. 자료들을 인터넷을 통해 입수하고 저작권 계약도 전자 메일을 통해 처리, 책 만드는데 두달이 소요된 것으로 화제를 모았던 책이다. 《아무것도 되는 게 없어》는 민음사가 인터넷 검색프로그램인 알타비스타 (<http://altavista.digital.com>)를 뒤져 찾은 마빈 해리스의 저작물로 자회사인 황금가지를 통해 출간한 것이다. 인터넷 정보가 책의 선정이나 기획, 출판으로 직접 연결되는 사례가 드문 이유에 대해 인터넷 정보를 활용해본 출판인들 대부분은 "인터넷 정보는 참고자료 정도이기 때문"이라고 답한다.

기획자들이 필요로 하는 정보는 본격적이고 다양한 서평들인데 비해 제공되는 정보의 대부분은 판매순위라거나 책 소개, 내용 초록 정도라는 것이다. 게다가 외국에서 잘 팔린 책이라고 해서 우리나라에서도 마찬가지로의 결과를 가져오는 것은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보 자체에 지나치게 의존해서는 안된다는 게 편집자들의 일반적인 시각이다.

인터넷이 애당초 미 국방성의 군사적 목적으로 만들어진 것이고, 일반적으로 제공되는 정보 또한 지나치게 미국에 의존하고 있어 '정보의 식민화'를 염려하는 사람도 있다. 길벗출판사의 이지연씨는 "국내 PC 통신으로도 충분히 가능한 자료들을 굳이 인터넷에 나가서 받는 것은 일종의 정보 과소비이다"라고 지적하고, 거품이 많은 국내 인터넷 열풍에 출판계까지 덩달아 나설 필요가 있겠느냐고 말한다.

그러나 국내 인터넷 열풍에 거품이 있음을 인정하고 미국이 독점하는 정보시장에 대한 우려에도 불구하고, 아니 바로 그 점 때문이라도 국내 출판인들이 "인터넷에 더 많은 관심을 가져야 한다는 주장도 적지 않다. "인터넷은 단순한 정보 네트워크가 아니다. 아직까지는 미흡한 점이 있다 할지라도 궁극적으로는 책의 기획과 생산·유통·광고와 나아가 책의 형태까지 변환시키는 결과를 가져온다. 출판시장 개방을 목전에 두고 있는 만큼 우리 출판계의 구조적 변화의 요청에 대응하는 일은 결코 늦추어져서는 안된다"는 한 출판인의 말은 인터넷에 대한 관심의 중요성을 새삼 일깨운다.

—박남정 기자